



부산체육

톡톡

October 2020 VOL.08

사람과 사람 ①

쏟살같이 바람을 가르고,
눈송이처럼 춤을 춘다!
부산 배드민턴계를
견인하다!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오성기 회장 / 교수



사람과 사람 ②

포스트 장미란,
킹콩을 들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손영희 역도선수



이달의 이슈

첨단과학 견인하는
스포츠 한국의 리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톡

경쾌한 스트라이크의 향연!
낮춤과 검손의 미덕을
득하다!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우승팀
'사람과 사람들' 볼링동호회



스포츠 전국 투어 -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단양



Activity, 자유롭게 비행하는 인간새를 꿈꾸다!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단양을 날다

교육 톡 - 스포츠 관련 직업




Health & Leisure 관심 Up!
스포츠 관련 직업도 Up!

사람과 사람



쏟살같이 바람을 가르고, 눈송이처럼 춤을 춘다! 부산 배드민턴계를 건인하다!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회장
부산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오성기 회장 / 교수

모 국립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1년 만에 휴학계를 낸다. 중산층 가정의 7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온종일 뒷산을 오르며 뛰노는 걸 즐겼던 그는 공주사범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다시 입학한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 부회장,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직에 이어 현재는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대학시절 배드민턴 동아리에 참가한 인연을 시작으로 55년간 배드민턴인으로 살아왔다. 부산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계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온 부산외국어대학교 오성기 명예교수를 만났다.

중·고등학교 배드민턴 선수 육성에 박차



“배드민턴과의 인연은 대학 2학년 때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한 게 시초였어요. 그 당시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어려서부터 운동신경이 좋았던 터라 스피드와 파워가 매력인 배드민턴이 제게 잘 맞았죠.”

1970년대 데레사여자중학교에 부임하면서 배드민턴팀을 창설, 10년 동안 배드민턴 감독 교사로 활동한다. 본격적으로 선수를 키우고 부산배드민턴협회 임원으로 활약한 오성기 교수, 1986년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남자 배드민턴팀을, 1991년에는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면서 감독으로 선임돼 솔한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했다.

“잘 다니던 데레사여자중학교에 사표를 던지고 7년 동안 대학 강사로 보따리 장사를 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곧바로 정식 교수로 임용될 줄 알았는데 제 예상이 빗나갔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건 물론이고 주위에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죠. 젊은 나이에 부산 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과 대한배드민턴협회 감사직을 맡으며 선수 육성 방법이나 체육 행정에 관한 공부도 꾸준히 했고요. 부산광역시체육회와의 인연도 이때 시작된 셈이죠.”

말고 있던 부산외국어대학교 배드민턴팀 선수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했고 그 노력은 결국 빛을 발했다. 선수들의 경기력은 급상승했고 하나둘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는 등 한국 배드민턴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 감독으로 역량을 인정받은 오성기 교수는 40대 중반에야 비로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전임교수로 임용된다.

1990~2000년대 한국 배드민턴 부흥기를 이끌다



“솔한 세월 배드민턴 감독을 맡으며 제일 기억에 남는 선수들은 사실 한둘이 아니죠. 곽찬호 선수는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땀어요. 여자 배드민턴팀의 길영아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을, 김지현 선수는 세계주니어배드민턴대회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 외에 눈부신 기량을 선보인 이영숙, 정은화, 강복승 선수 등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들이 떠올라요. 이들 덕분에 한국체육대학교를 제치고 부산외국어대학교가 배드민턴에 강한 대학으로 급부상한 셈이죠.”

오성기 교수는 한국 배드민턴의 부흥기였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떠올렸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남자복식에 출전한 박주봉, 김문수 조가 금메달을 땀는데 눈빛만 봐도 서로 마음을 읽을 만큼 합이 잘 맞는 환상의 복식조였다고 했다. 또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 출전한 김동문과 길영아 조, 2008년 북경올림픽에 나간 이용대와 이효정 조 또한 환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인 혼합 복식조로 배드민턴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했다.

사람과 사람



무아경의 세계, 배드민턴의 마력에 흠뻑 빠지길



역병의 시대를 맞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드민턴 선수들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에게 꼭 들려주고픈 얘기가 있다는 오 교수. 단체 합동훈련에서 비대면 개인훈련으로 환경이 바뀌면서 경기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코치가 작성한 연간 훈련 계획대로 개인훈련을 소화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체력과 기술의 강화가 어려울 거라며 염려를 나타냈다. 결국 철저한 개인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 오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중국 서경(書經)에 ‘유비무패(有備無敗)’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미리 준비가 끝난 선수에게 패배란 없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 상대 선수를 만났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충만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선수 개개인이 각성하고 지속적인 훈련을 이어가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 보강하는 기회로 삼는 알찬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하루 평균 강의는 4시간, 방과 후 선수들 훈련은 3시간가량, 퇴근 후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는 오 교수. 퇴직 후에는 술과 담배를 끊고 하루 만보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건강관리 중이다. 일단 배드민턴을 쳐 본 사람은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마련이라는 그는, 천둥 같은 스매시와 표범 같은 순발력, 고양이 같은 경쾌한 발놀림의 무아경(無我境) 세계를 소개한다. 배드민턴의 환상적인 마력에 빠져 보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가닿고 삶의 활력을 찾길, 부산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계의 살아 있는 역사이자 선구자인 오 교수는 간절히 바랐다.



Badminton

“ 유비무패(有備無敗)

미리 준비가 끝난 선수에게 패배란 없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후
상대 선수를 만났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충만해진다.

”



사람과 사람



포스트 장미란, 킹콩을 들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손영희 역도선수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손영희 역도선수는 어려서부터 워낙 체격도 좋고 순발력이 남달랐다. 그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건 어머니다. 평소 어머니의 교육 철학은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한다가 아닌 재능을 키워주자는 주의였다. 손 선수가 역도선수가 된 건 해림초등학교 재학 시절 역도 코치였던 임종덕 지도자의 권유도 한몫을 했다. 한국 여성 역도계를 넘어 세계 여성 역도계를 뒤흔들 ‘포스트 장미란’이란 타이틀의 주인공, 손영희 선수의 탄생은 부모님의 열린 교육 철학에서 시작된 셈이다.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까지 유쾌하고 즐겁게 만드는 아우라를 지닌 손 선수, 인터뷰 내내 마냥 사람 좋은 웃음이 가득했고 외유내강(外柔內剛)의 힘이 느껴졌다.

올린 체급만큼 여유와 담력을 키우다!

“해운대에 위치한 요트경기장 옆에 역도훈련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방학에만 가서 연습을 했죠. 초등학교 5학년부터 4교시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국내 시합은 6학년 때 처음 나갔고 대한체육회에 역도선수로 등록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죠.”

덕포여자중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 내에 훈련장이 없어 인근에 위치한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역도훈련장에서 연습을 이어갔고 자연스럽게 부산에너지과학고등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했다. 오전 수업을 받고 오후 7시까지 훈련,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체력훈련을 이어갔다. 역도가 중량 운동이다 보니 무리한 훈련을 연이어 하기 보다는 하루나 이틀 몸을 쉬어주면서 컨디션 조절을 했다. 중학생 때까지 75kg 이하급으로, 고등학교 때부터는 75kg 이상급에서 경기를 뛰었다. 현재는 87kg 이상급으로 대회에 나간다.



정국은 장난도 능청스레 받아넘기며 연신 웃음 가시지 않던 실업팀 역도선수들과 서문희 감독

기록을 깨는 찰나의 기쁨, 힘든 운동을 지속하게 만든 동력

단번에 들어 올리는 인상보다 한 차례 목에 걸쳐 들어 올리는 용상에 더 강한 손영희 선수, 역도선수의 길로 들어서면서 매년 4번 정도 국내외 대회에 꾸준히 참여해온 그녀다. 지난 2018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욕심을 부려 중량을 높이는 바람에 팔꿈치가 골절되는 사고를 겪었다. 시합에서 이렇게 크게 다친 건 처음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곧바로 수술을 했다. 불과 1년이 안 되는 시기, 피눈물 나는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그토록 빠르게 회복한 건 손영희 선수의 재기 의지가 남달라서였다. 사고 발생 1년 후 도전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 87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다. 지금도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을 만큼 후유증이 큰 사고였지만 힘겨운 재활 과정을 이겨내고 최상의 결과까지 얻은 것,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 한쪽이 찢릿하다고.

“기억에 남는 대회가 참 많아요. 2015년 강원도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 처음으로 3관왕을 땀어요. 인상과 용상, 합계에서 각기 메달이 주어지는데 셋 모두 금메달을 딴 거죠. 또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인상 122kg, 용상 160kg 합계 282점을 얻어 은메달을 땀고요. 물론 2016년 리우 데자네이루올림픽 선발전 때 인상 122kg, 용상 166kg까지 들어 올린 게 제 최고 기록이긴 해요. 기록을 깰 때마다 그만한 희열이 없답니다. 순간 맛보는 찰나의 기쁨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죠.”

사람과 사람



“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선발전 때 인상 122kg, 용상 166kg까지
들어 올린 게 제 최고 기록이었죠.
기록을 깰 때마다 그만한 희열이 없답니다.
순간 맛보는 찰나의 기쁨이 운동을
계속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죠.”



☞ 내일을 기약하는 긍정의 언어에 희망을 담다

국제대회에서 만난 북한의 김국향 선수와는 절친한 사이이다. 김 선수와 첫 대면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같은 체급에 동갑이다 보니 말이 잘 통한다고 했다. 국제대회를 준비할 때면 잘 해내야 한다는 긴장감도 크지만 김 선수를 만날 생각에 늘 마음이 들뜨는 그녀다.

“여자 역도선수들의 수명이 길진 않아요. 선수가 자기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역도는 중량 운동이고 특히 근력이 중요한데 30대로 넘어가면 아무래도 근력이 약해지니까요. 세계적인 장미란 선수가 32세에 은퇴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올해 28세니까 2025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걸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훈련에 임하고 있어요. 그 이후의 삶은 역도 지도자를 계획 중이고요. 지금부터 미리 관련 자격증을 공부 중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겠다는 손 선수, “어떻게든 잘 되겠죠!” 긍정의 언어로 내일을 기약한다. 훈련을 할 때나 대회에 나가면 분명 눈빛이 달라지고 매순간 안간힘을 다하는 국가대표이지만, 평상시에는 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 손영희 선수, 그녀 안에 깃든 긍정의 기운을 무기 삼아 향후 역도선수로 또 역도 지도자로서 승승장구, 탄탄대로의 길을 개척하리라 기대해본다.

“
차세대 역도 여제,
뒤틀리고 울퉁불퉁한 손
응원해주세요!”

Mini
Interview



서문희 감독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손영희 선수는 실업팀에 와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어요. 역도선수는 근력 외에도 유연성과 순발력, 스피드가 다 중요한데 이를 다 갖춘 선수가 손 선수랍니다. 몸의 반동을 잘 이용해서 역도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저크’라고 하는데 특히 다리를 앞뒤로 벌린 채로 하는 ‘스플릿 저크’ 동작은 과히 세계 탑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역도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온 손 선수가 지난 9월 23일(수)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0 전국남녀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인상 금메달, 용상 금메달, 합계 금메달 3관왕을 수상한 것도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해서겠지요.

스포츠 톡



**경쾌한
스트라이크의 향연!
낮춤과 검손의
미덕을 득하다!**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우승팀

‘사람과 사람들’ 볼링동호회



**‘사람과 사람들’
볼링동호회**



1997년도에 창단, 역사만 해도 23년이다. 본래 동호회 명칭은 영문으로 People&Peoples를 줄인 P&P였는데 2018년에 한글 명칭인 ‘사람과 사람들’로 바꿨다. 술한 세월만큼이나 회원수는 늘고 줄기를 반복했지만 한번 맺은 인연(因緣)은 쉬 끊어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들’에 몸담은 지 22년 차인 이범수 회장, 15년차인 황동완 회원 등은 동호회의 산증인이다. ‘사람과 사람들’은 2018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준우승에 이어 2019년 슈퍼컵대회에서는 우승을 차지했다. 인연을 소중히 해온 술한 세월만큼 볼링 실력 또한 쉼 없이 쌓은 그들이다.

**볼링보다 사람의
끈끈한 정이
좋은 모임**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1995년, 직장 동료들과 삼삼오오 모여 즐겼던 게 볼링이었다는 이범수 회장, 1998년 친구의 권유로

‘사람과 사람들’ 볼링동호회에서 가입해 22년째 한결같이 동호회를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사람과 사람들’은 30대부터 곧 60대를 바라보는 회원에 이르기까지 연령대 폭이 큰 편이지만 ‘볼링’을 향한 열정만큼은 모두 한마음이다. 최근 제일 어린 30대 회원이 들어왔는데 서로 격의 없이 지낸다고. 정해진 모임은 2, 4주 목요일, 문현동에 위치한 유일볼링장에서 저녁 8시부터 시작해 4게임 이상을 친다. 통상 2시간에서 3시간가량이 소요된다.



**드라마와 같은
역전승,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 덕분**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때 부산 시내 12곳의 볼링장에서 예선을 치렀다. 어느 특정 동호회가 유리하지 않도록 볼링장을 바꿔가며 경기를 치른 것. 8년째 ‘사람과 사람들’이 볼링 실력을 갈고닦아온 문현동 유일볼링장에는 ‘사람과 사람들’ 외에 5개 볼링동호회가 터를 잡고 연습에 매진 중이었다. 이범수 회장을 도와 버팀목 역할을 해온 황동완 회원, 유일볼링장 사장님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그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은 건 2019년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준결라운드 2차전이다. 총 8게임을 치는데 7게임일 때 32핀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8게임에서 상대팀 선수들의 실책이 이어졌고 운 좋게 연달아 그가 스트라이크를 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볼링, 맘껏 즐기자!
삶의 만족도 높이는
힐링처**

“잠이 날 때마다 유튜브에서 전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손동작이나 자세 등을 관찰하고 배우려고 한답니다. 또 제가 참여한

경기를 보면서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고쳐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죠. 볼링은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스포츠라서 꾸준한 공부, 연구가 필요해요.”

실력만 믿고 감(感)으로 볼링을 치기 보다는 씬 없이 배우는 자세를 견지해온 황동완 회원, 2019년부터 바뀐 부산광역시장배 슈퍼컵대회 경기 규정을 알려줬다. 같은 팀이 반복해 우승하는 걸 막기 위해 볼링의 경우 전년도 우승팀부터 공동 3위를 한 팀이 다음해 슈퍼컵에 참여할 경우 한 게임당 50점을 차감하는 ‘핸디캡’ 제도를 도입한 것. 매 대회에 참여하는 이유가 ‘우승’만이 목표는 아니므로 ‘사람과 사람들’은 올해 역시 즐기는 마음으로 슈퍼컵대회에 참가기로 했다. 5인조 경기를 하는 부산광역시장배나 부산광역시볼링협회장배와 같은 대회에도 참가해 실력 발휘를 해보고 싶단다. 그 오랜 기간 우정과 실력을 촘촘한 씨줄과 날줄로 엮어온 그들, 진정한 ‘볼링 즐김’으로 인생 최대의 힐링을 맛보는 중이다.

스포츠 전국 투어



Activity, 자유롭게 비행하는 인간새를 꿈꾸다!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단양을 날다

남한강 물길에 자리한 충북 단양은 그림 같은 절경이 돋보인다. 해발 1,000m 내외 산봉우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단양은 특히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에서 바라본 단양 8경이 압권이다. 전국에서 체험비행 환경의 자연적인 조건과 경관이 탁월하고 연 300일 이상 비행이 가능할 만큼 바람의 기류 형성이 안전하기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의 성지로 꼽히는 단양. 두꺼운 슈트를 입고 장비를 갖추고 맞바람을 기다린다. 이제 비상해야 할 시간! 공중에 둥둥 떠 굽이굽이 돌아나가는 남한강의 정취와 역동하는 단양의 모습을 발 아래로 내려다보는 탁월한 즐거움을 당신에게도 권한다.

☂ 맞바람 불어오는 활공장에서 만난 특별한 자유

패러글라이딩은 패러슈트(낙하산)와 글라이더의 중간 형태인 패러글라이더를 갖추고 활강하는 항공스포츠다. 분해와 조립이 용이해 운반하기 쉽고, 글라이더의 활공성과 속도에 낙하산의 안정성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다른 항공스포츠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다. 1984년 프랑스의 등산가 쿠아뱅이 개조한 낙하산으로 비행에 성공하면서부터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없고 적당한 맞바람이 불어오는 활공장이 필요하다. 경사면을 달려 내려가며 날개를 펼칠 수 있어야 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높이도 요구된다. 활공이 시작된 후에는 산줄을 조정하고 바람의 방향을 잘 따르면 원하는 만큼 비행이 가능하다. 1986년 보급된 이후로 항공스포츠 분야에서는 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 충북 단양 외에도 서울 근교의 용인, 가평은 물론이고 영월과 평창, 제주까지 활공장이 들어서 있다. 보이는 풍경이 모두 다르고 활공장마다 활동하는 업체들도 다양하므로 취향에 맞는 곳으로 찾아가면 된다.



☂ 전문 활공장을 이용해 패러글라이딩 만끽하기

단양의 활공장 정상에 위치한 사무실에 들어가면 아기자기한 장식들이 눈에 띈다. 이미 다녀간 체험객의 즐거움 가득한 표정의 사진들과 달콤한 간식거리들에서 고객들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작은 배려가 느껴진다. 안전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영상을 통해 체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철저한 안전 교육을 듣게 된다. 다음은 복장을 갖춘 차례다. 평소에는 걸칠 일이 없는 위아래가 붙어 있는 슈트가 이색적이다. 파일럿의 도움을 받아 무릎보호대와 헬멧을 착용하고 배낭처럼 헤네스를 매면 준비는 끝. 개인 준비물은 필요 없지만 햇볕을 막기 위한 선글라스 정도는 지참하면 좋다. 혼자 하늘로 날아올 수 없는 초심자를 위해, 각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에는 2인승 텐덤 비행 코스가 준비돼 있다. 코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분에서 15분가량 비행할 수 있는데 그날 기상에 따라 비행시간은 조금씩 달라진다. 바람의 흐름을 읽다가 때가 되면 전속력으로 달리고 날아오른다. 단양 패러글라이딩은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할 만큼 인기가 높다. 패러글라이딩의 기본 코스로 롤러코스터, 바이킹과 같이 스릴감을 느낄 수 있다. 패러글라이딩은 강도를 조절해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온 사람이 그냥 비행과 아트 비행, VIP비행 중 하나를 선택해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 있다.

☑ 단양의 대표적인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3곳

- ☂ 단양패러글라이딩활공장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246-6
- ☂ 단양두산활공장 :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두산길 254-6
- ☂ 양방산활공장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양방산길 350



이달의 이슈



첨단과학 견인하는 스포츠 한국의 리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1980년 개원 이후 엘리트 스포츠의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참가 및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국민 체력(휘트니스) 증진을 위한 측정 및 사업개발 등으로 국가 체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대의 요구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준정부기구이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과거처럼 한국 체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끈 전문연구와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현장 가장 가까이에서 창의력과 자신감으로 산업발전을 선도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사업분야

01 스포츠과학 연구

엘리트 스포츠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운동을 통한 국민체력 증진

- 기초연구 : 기초 이론과 융·복합 신지식 개발로 학문영역별 지식체계 발전
- 경기력 향상 연구
 - 효율적 운동모형 개발과 최상의 운동수행을 위한 최첨단 스포츠과학 연구
 - 전문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지원
- 지역스포츠과학센터 지원사업 : 전국 초·중·고교 및 일반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학적 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 마련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연구 : 생애주기별 체력기준 및 운동 프로그램 개발
- 스포츠과학 교류 : 학문교류를 통해 국제 과학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스포츠과학화의 교두보 역할
 - * 아시아스포츠과학컨퍼런스, 스포츠과학 세미나 등

02 체육정책 연구

국가 체육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의 방향 선도

- 정책개발연구 : 체육 관련 법안 정비하고 제정 지원하며 체육진흥정책 평가, 분석하고 개발, 수립한다.
- 스포츠산업연구 : 스포츠 용품을 개발, 연구하고 품질, 기능 보안을 위한 시험 평가 연구한다. 또, 스포츠 용품 관련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을 연구한다.
- 체육정책 수립 지원 : 국민체육진흥5개년 계획, 체육정책의 수립과 평가, 공공 정책 방향을 선도한다.
- 학술역량강화 사업 : 학회, 대학,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학술적 네트워크 가동을 통한 정책연구와 현안 대응력을 강화한다.
- 해외 조사연구원 파견 및 국제대회·회의 참석 : 국제 스포츠과학의 변화에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선진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다.
- 출판 및 문헌정보 제공 : 체육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고 해외 학술논문과 도서를 온오프 라인으로 지원한다.

03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지원
(2012년 6월 체육 관련 연구기관 세계 최초 유네스코 석좌기관 선정)

- 청소년 스포츠 관련 아카이브 : 스포츠와 청소년 교육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접근, 순수 학문 탐구 및 기존 발달 프로그램 사례분석자료 구축
- 청소년 발달 프로그램 개발·공유 : 현장 적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제회의, 국제행사, 워크숍을 통해 공유
- 연구 결과물 전파 :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발달'의 연구 결과물 및 프로그램을 아시아 및 전 세계로 보급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04 스포츠산업 진흥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국내 스포츠 산업 발전 견인

- 기술개발 지원 : 신제품, 신기술 연구개발 지원·스포츠 용품 품질 시험·인증
- 재정적 지원 :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조성·신제품, 신기술 개발 연구 개발비 지원·저금리 융자 지원
- 일자리 지원 : 일자리지원 시스템 'Jobspoils' 운영·스포츠 산업 전문인력 양성
- 마케팅 지원 : SPOEX 개최 해외시장 진출 지원·중소기업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05 체육인재 육성

체육 분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환경 구현

- 체육영재 : 최상위 경기력을 보유한 학생 선수 선발 / 관리
- 여성스포츠리더 : 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원 대상 여성 스포츠 인재 전문역량 강화
- 국제심판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취득 지원
- 스포츠 멘탈코치 : 현장 중심의 멘탈 코치 육성, 지도자의 멘탈 트레이닝 활성화
- 국제스포츠행정가 :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 톡



Health & Leisure 관심 Up! 스포츠 관련 직업도 Up!

스포츠 관련 직업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은 운동하기를 좋아하고 스포츠 관련 학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스포츠 관련학을 전공하려면 각종 운동 종목을 습득할 수 있는 운동 자질이 있어야 하며 훈련을 감당해낼 체력도 필요하다. 현대인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과 여가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급부상 중인 스포츠 관련 다양한 직업을 들여다본다.



건강운동관리사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해 지도·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격취득 방법과 조건

- 만 18세 이상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및 구술 - 연수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 필기시험 과목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필기시험 과목은 위 8과목으로 이루어진다.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단일과목이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하게 된다. 이러한 과목을 통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 및 구술면접이 이뤄지며 각자에게 주어진 주제로 시험이 이루어진다. 실기시험 및 구술면접은 70점 이상 얻어야 합격하게 된다. 모든 시험을 합격한 후 연수는 200시간을 받아야 한다. 서울, 충청, 전라 3군데의 권역에서 이뤄지고 지리적으로 편한 곳으로 신청하면 된다.

☑ 건강운동관리사의 전망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해 치료와 병행해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보건소, 근로자건강센터, 국민체육센터, 병·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 기업체 등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최근 양의사들 외에도 한의사들 역시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건강운동관리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는 유의미한 한걸음이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체육 관련 자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란 체력·기술·심리적으로 전문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자격취득 방법과 조건

- 만 18세 이상
 -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해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체육 분야 학사, 졸업예정자 포함),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의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체육 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 이상),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체육 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석사·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등이 있다.
- 필기 - 실기 및 구술 - 연수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 필기시험 과목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필기시험 과목은 위처럼 7과목 중 5과목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합격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취득해야 하며 단일과목이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을 경우 불합격하게 된다. 이러한 과목을 통한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 및 구술면접이 이루어지며 선택종목에 맞게 시험이 이뤄진다.

실기시험은 각 종목에 맞춘 시험이 이뤄지며 70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모든 시험을 합격한 후 연수는 경상, 충청, 전라, 수도권 권역에서 이뤄지며 합격 후 3년 이내에 90시간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실습 과정도 이루어진다. 국가대표나 프로선수(출신)와 같은 특수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구술 또는 구술 및 40시간 연수로 진행된다.

* 자세한 사항은 체육지도자연수원(<https://www.insports.or.kr/main/main.do>)을 참고
- 경상은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연수과정이 진행된다.

☑ 전문스포츠지도사 종목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루지,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 스켈레톤,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태권,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 전문스포츠지도사의 미래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초·중·고·대·일반부의 전문체육선수와 국가대표까지 양성하는 종목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다. 그 때문에 전문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전문스포츠지도사는 자신의 종목의 기술적인 전문성은 물론이고 그 외에 심리학, 교육적 등 여러 분야의 전문성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체육인재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신의 전문종목 외에 전문분야를 늘린다면 앞으로 더 많은 지도자가 생기는 와중에도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훌륭한 전문선수를 양성하는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